

# 영어, 대학별 변별력 차이 많아... 유리한 전형 공략해야

## 서울 주요대 2019 정시

인문 국·수, 자연 수·과 비중 높아  
영역별 반영비율 역시 파악해야  
6월 모평 영어 '고난도' 대비해야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진선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19 대입예측 입시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안내책자를 보며 관계자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뽑는 2019학년도 대입에서 서울지역 대학들은 어떻게 신입생을 선발할까. 대부분 수능 100%를 반영하지만 대학별 수능시험 반영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계열별로 반영 영역과 비율이 확연히 다르다. 특히 지난해부터 9등급 절대평가제로 변경된 수능 영어 반영 방법은 물론, 이로 인한 그의 국어·수학·탐구 영역 반영 방법도 영향을 받았다.

서울대 자연계 모집단위의 경우 2017학년도 정시모집까지는 국어 25%, 수학 가형 30%, 영어 25%, 과탐(2과목) 20%를 반영했지만, 2018학년도 정시모집부터 국어 33.3%, 수학가형 40.0%, 과탐(2과목) 26.7%로 바뀌었고, 영어 영역은 등급 간 0.5씩 감점 방식으로 변경됐다.

서울지역 대학의 수능시험 반영 영역은 일부 대학의 예체능계 모집단위를 제외하면 모두 국어·수학·영어·탐구(사탐·과탐) 영역을 반영하되, 서울대 인문계 모집단위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필수 응시 영역으로 반영한다.

계열별 반영 영역도 차이가 크다. 인문계 모집단위의 경우 대체로 국어·수학(가형 또는 나형)·영어·탐구(사탐 또는 과탐) 영역을 반영한다. 하지만 한양대·경희대·건국대는 국어·영어·수학나형·사탐 영역을 지정 반영하고, 이화여대는 국어·영어·탐구(사탐 또는 과탐)·수학나형 영역을 지정해 반영한다.

자연계 모집단위는 대체로 국어·수학 가형·영어·과탐 영역을 반영한다. 하지만 서울대 의류학과·간호대학, 고려대 가정교육과·간호대학·컴퓨터학과, 숙명여대 통계학과·컴퓨터학과·소프트웨어융합은 국어·수학(가형 또는 나형)·영어·탐구(사탐 또는 과탐) 영역을 반영한다. 예체능계

모집단위의 경우 대체로 인문계열과 동일하게 반영하거나 수학 영역을 제외한 국어·영어·탐구(사탐 또는 과탐) 영역을 본다.

탐구영역 반영 과목수는 한양대와 경희대 예체능계 모집단위만 1과목을 반영하고, 나머지 대다수 대학과 모집단위들은 모두 최대 응시 과목 수인 2과목을 반영한다.

9등급제 절대평가로 반영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수능시험 점수 활용지표를 보면, 서울교대·홍익대는 전 영역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숙명여대는 백분위를 본다. 나머지 대다수 대학들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활용한다. 표준점수

와 백분위를 함께 보는 대학의 경우 국어·수학 영역은 표준점수를, 탐구 영역은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 역시 대학마다 크게 다르므로, 각 대학별 모집요강을 꼼꼼히 파악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 수능 영어 영역이 지난해 대비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히 대학별 영어 영역 반영 방식은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대학별 올해 수능 영어 영역 반영방식을 보면 서울대(가군)·고려대는 감점 방식을 적용하는데, 서울대의 경우 2등급부터 등급당 -0.5씩 감점해 변별력이 매우 낮지만, 고려대는 등급당 -1, -2씩, -3씩 감점해 상대적으로 감점 비율이 크다.

연세대·한양대·이화여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건국대·동국대·홍익대·숙명여대는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있는 점수화로 반영하는데, 대학마다 또는 계열마다 배점이 다소 차이가 있다. 예컨대 연세대의 경우는 1등급 100점, 2등급 95.0점, 3등급 87.5점, 4등급 75.0점 등으로 반영하지만, 이화여대는 1등급 250점, 2등급 240점, 3등급 230점 등으로 반영하고, 건국대 인문계의 경우는 1등급 200점, 2등급 196점, 3등급 193점 등으로 점

수폭이 제각기 다르다.

또 성균관대·서강대·중앙대는 가점 방식을 적용하고, 서울교대의 경우는 1~3등급까지 최저기준으로만 반영하므로, 영어 4등급 이하를 받으면 다른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합격이 불가능하다.

영어와 함께 9등급 절대평가인 한국사의 경우도 서울대·한양대·서울시립대는 등급별 감점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반면,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동국대·숙명여대 등은 가점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경희대 인문계열은 3등급까지 최고 점수를, 4등급 이하부터는 감점되고, 경희대 자연계·건국대 4등급까지 최고점수를 부여하고 그 이하부터 감점된다. 서울교대의 경우는 4등급까지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한다.

에스티유니타스 커넥츠스카이에듀 유성룡 진학연구소장은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에 따라 영어 영역뿐만 아니라, 그의 주요 영역의 반영방식과 비율이 적지 않게 바뀌어 대학별 모집요강을 꼼꼼히 확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지난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실제 수능 영어도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어 영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울산과학기술원 주상훈교수 연구팀

### 가역연료전지용 '산소극 촉매소재' 개발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주상훈 교수 연구팀과 세종대 박준영 교수 연구팀이 삼중층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가역연료전지용 산소극 촉매소재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의 자매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6월호에 '삼중층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가역연료전지용 고성능 고내구성 산소극 촉매 소재'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최근 수소 경제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수소 발생·활용 관련 응용분야 중 하나인 가역 연료전지(RFC)가 각광받고 있다.

가역연료전지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응용될 수 있는 에너지 장치다. 가역연료전지의 성능은 산소극에서 산소 발생·환원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의 활성과 내구성에 의해 좌우된다.

현재 백금과 이리듐 등 백금계 귀금속이 촉매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백금계 귀금속은 가격과 장기 안정성 측면에서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상훈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박준영 교수 연구팀과 주상훈 교수 연구팀은 삼중층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금속 산화물을 기반으로 높은 성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구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귀금속에 비해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춘 새로운 산소 환원·발생 반응 촉매를 개발했다.

주상훈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촉매 활성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저가 금속 산화물계의 개발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 카자흐스탄서 '한국어 문학' 학술대회 개최

고려대 BK21 PLUS 한국어문학 미래 인재육성사업단(단장 최호철 교수)은 18~1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카자흐 국제관계·세계언어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5개국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문학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다.

사업단은 2013년부터 한국어문학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트리컨티넨탈(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 내 한국어문학 연구와 교육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그동안 터키 예르시즈대학교, 멕시코 나야리트자치대학교, 브라질 상파울루대학, 헝가리 엘뎬대학교, 미얀마 양곤 외국어대학교, 대만 정치대학교, 이집트 아인삼스대학교 등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한용수 기자



대전대 외국인 유학생 수료식

대전대는 국제교류원이 혜화문화관 블랙박스홀에서 교환학생과 한국어교육센터생 등 올 1학기 외국인 유학생 171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봉환 국제교류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지체장애인 위한 '찾아가는 검정고시' 운영

### 서울시교육청

#### 18~22일 응시원서 교부·접수 진행

서울시교육청이 지체 장애인의 시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2018년도 제2회 초·중·고졸검정고시'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를 18일~22일 진행한다. 원서접수는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접수는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진행한다. 현장 접수가 어려운 응시자는 '나이

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18일~21일만 가능하다.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시 교육청은 지체장애인의 시험 편의를 고려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 시범 운영 ▲일반고사장 전체에 지체장애 응시자를 위한 특수고사실 병행 설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접수처를 운영한다.

그동안 중도장애인들은 각종 보조장비를 갖추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고사장

까지 어렵게 이동해야 했다. 시 교육청은 재택시험대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응시자의 장애 정도와 고사장으로 지정한 장소 등을 고려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험부터는 일반고사장 전체에 지체장애 응시자를 위한 특수고사실을 병행 설치한다. 또한 지체 장애응시자가 집에서 가까운 고사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일정과 과목, 응시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이범중 기자 joker@

## "대학시절 가장 잘한 일은 '학점관리'"

학업을 마친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이 대학시절 가장 잘한 일로 '성실한 학점관리'를 꼽았다.

취업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학업을 마친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729명에게 '대학생활 중 가장 잘한 일'을 설문한 결과,

35.8%가 '학점관리를 성실하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학점 관리에 이어 '장학금을 받은 것(32.8%)'과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것(31.3%)' 순으로 답했다.

성실한 학점 관리의 직장인 응답자 중

에서도 35.7%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장학금 받은 것'은 31.6%로 뒤를 이었다.

신입직 채용 시 직무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전공수업을 통한 직무전문성 준비의 중요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 잘 한 일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것(29.6%)'이 꼽혔다.

/이범중 기자